

24.03.26 화요일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는다. 빈둥지증후군을 듣고 전라도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자꾸만 났다. 나도 너무 보고 싶은데 부모님께선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지 걱정 밖에 나질 않는다.
로마 군인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있을 때 든든하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제자들의 그 상실감과 비참함이 정말 느껴진다.
예수님께선 빈둥지증후군을 극복하였는데 제자들은 극복하지 못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빈둥지증후군을 낮게 해줬다니!!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
항상 감사하면서 강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24.03.26 화요일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빈둥지증후군이란 자식들이 독립하여 느끼는 상실감,
허전함을 사람에게 빗대어 만들어진 말이라고 한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돌아보는 주간 이다.

고난주간은 상실감을 갖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고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03.26 화요일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빈둥지증후군은 자식들이 독립하여 느끼는
상실감, 허전함을 말하는데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만 같은 허망감,
자괴감이 들 때가 있다.
예수님이 빈둥지증후군을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빈둥지증후군을 이겨내야 한다.

24.03.27 수요일야간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우연이라는 것은 사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되
사람의 본 모습(형태)를 잘 지켜야 한다. 세계의 작품도
시간이 지나면 형태가 무너지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다시 태어나시게(복원)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훼손된 모습을 사랑해주셨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셨다.


또 다른 영혼으로 한 마음의 믿음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몸조심하며 살아가야 한다.

어디에 있든, 누가 됐든, 무엇을 하든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나'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의미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 목소리를 듣고 확신해야 한다.

24.03.27 수요일야간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모든 것에는 의미와 목적이 존재한다.
우리 또한 그저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유와 목적 앞에 존재와 의미가 있는 삶이다.
우리는 마음 속 행동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그러한 것들은 현실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작품으로써 주위의 모든 것에 영감을
주고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24.03.27 수요일야간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성경에 글자는 죽어있는 글자지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누굴 만나든 어디에 있든 자신있게
때로는, 겸손하게 행동하자.

24.03.28 목요일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라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어진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예수님이 존재하여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4.03.28 목요일예배 공소(공감과 소통)

세례-침례-물 속에 잠기다.
세례(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경험하여 다시 태어남을 받아야 한다.
그저 말로만, 그저 믿음으로만 막연하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아니라,
직접 세례를 통해 경험함으로써
마음으로, 피부로,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느껴야 한다.